

## 나와 經學의 邂逅

김학주\*

나는 1959년 3월 국민당 정부의 초청으로 타이완(臺灣)에 유학하여 대만대학 國文研究所에 입학 석사과정을 이수하게 되었다. 대만대학 학생이 되어 첫 학기 첫 번째로 수강했던 강의가 다이권런(戴君仁, 1900-1978) 교수의 '經學歷史'라는 과목이다. 강의 주 교재는 피시루이(皮錫瑞)의 『경학역사』였다. 곧 타이완으로 유학을 가서 '경학'이라는 학문을 처음으로 접하게 된 것이다. 나는 서울대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다가 갔지만 한국에서는 경학과 관련된 강의를 들어본 일도 없고 경학에 관한 책을 읽어볼 기회도 없었다. 나는 처음 접하는 경학에 관한 강의를 다시 처음 듣는 중국어로 접하게 되었으므로 그 강의를 따라가느라고 무척 혼이 났다. 나는 경학을 처음 대하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중국의 경전을 한 권도 철저히 읽어본 일이 없는 처지여서 그 강의를 어느 정도 이해하기 위해서 죽을힘을 다해야만 할 정도였다.

그러나 '경학역사' 강의를 통해서 경학은 중국학의 기본이 되는 학문임을 차츰 깨달아가고 있었다. 이렇게 혼신의 힘을 다해서 강의를 듣는 중에 하루는 다이권런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

“이전의 중국학자들이 어떻게 공부를 하였는지 아는가? 선생님이 학

\* 서울대 명예교수, 한국학술원 회원 / E-mail: hakchu317@naver.com

생들에게 한 가지 경전에 대하여 가르치면서 그 경서를 읽는 법과 그 글 뜻을 알려주고 나면, 학생들은 각각 제자리로 돌아가 모두 그 배운 경서를 50번 읽고 50번 외었다. 그렇게 계속 공부하였기 때문에 머리가 좋은 학생들은 十三經의 經文 뿐만이 아니라 그 注疏까지도 전부 달달 외었다. 지금 자네들은 『十三經注疏』를 다 외우기는커녕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아 학문 수준이 형편없어졌다. 모두들 정신 좀 차려라!”

그리고 십삼경의 주소까지도 다 외우고 있던 중국의 마지막 학자로 류스베이(劉師培, 1884-1919)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현대적인 교육은 전혀 받아본 적도 없는 분이지만 북경대학 교수까지 역임하셨다는 것이다. 그리고 류스베이 선생님은 머릿속에 엄청나게 많은 책을 기억하고 계셨기 때문에 늘 文房四寶인 종이·붓·먹·벼루 만 들고 절간으로 들어가 책을 써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저술을 남겼다는 얘기도 해주셨다. 선생님은 끝으로 “『십삼경주소』도 제대로 읽어보지 않고 중국학을 하겠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고 꾸짖기도 하셨다.

이런 말씀은 내게 큰 충격이었다. 나는 그때까지 四書도 아직 다 제대로 읽어보지 못하였고 『십삼경주소』라는 책은 읽기는커녕 아직 구경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나는 즉시 타이베이(臺北) 시내 책방으로 나가 『십삼경주소』를 찾아 한 질을 샀다. 돈을 아끼려고 여러 서점을 두루 살피어 가장 값이 싼 책을 고른 결과 타이베이 啓明書局에서 옛 책을 影印한 것을 손에 넣게 되었다. 그 책은 출판사에서 경비를 절약하기 위하여 원본 6쪽을 1쪽에 모아 영인한 책이라 본문 사이에 끼어 넣은 注와 疏의 글자는 깨알처럼 작았다. 그 책은 본문은 물론 주소의 글도 띄어쓰기를 하지 않았음은 물론 콤마 하나 찍지 않은 한자만이 뽁뽁이 박혀있는 옛날 형식의 책이다.

나는 그 책을 사 들고 돌아와 바로 책을 펴놓고 본문은 물론 주소의

글에도 빨간 펜으로 표점을 찍어가면서 읽기 시작하였다. 두세 달에 걸쳐 그 중의 두어 가지 경전을 읽었을 적에 우연히 저녁에 밖으로 나가 하늘의 별들을 쳐다보니 별들이 모두 쌍쌍으로 보이는 것이었다. 이전까지 내 눈은 양쪽 모두 1.5 또는 2.0의 극히 좋은 시력이었다. 깜작 놀라 다음 날 안과병원으로 달려가 눈을 검사해 보니 양편 모두 근시라서 안경을 써야만 한다는 것이다. 나는 곧 시력에 맞추어 안경을 하나 사서 쓰고 공부보다도 자신의 몸을 더 잘 간수하여야 한다는 생각에 『십삼경주소』 읽는 일을 일단 중단한 뒤 한 참 뒤에야 다시 서서히 읽기 시작하였다.

다이권런 교수만 아니었다면 경전 공부를 완전히 집어치웠을 런지도 모른다. 그 전에 나는 경학역사 강의를 이해하기가 힘들어 다이권런 교수님을 찾아가 나의 고충을 호소한 일이 있었다. 그때 교수님께서 너는 일본글을 읽을 줄 아느냐고 부르셨다. 내가 “조금 압니다.”하고 대답하자 교수님은 다음과 같은 지시를 내려주셨다.

“일본학자 혼다나리유키(本田成之)에게 『中國經學史』라는 좋은 책이 있으니 대학 도서관에 가서 그 책을 빌려 읽도록 하라. 중국학자들에게는 모두 국학에 대하여는 자기 나름대로의 선입견이 있기 때문에 중국의 학술사나 사상사 같은 것은 객관적으로 쓰기가 매우 어렵다. 지금 우리가 교재로 쓰고 있는 피시루이의 『경학역사』도 그 방면의 유일한 명저로 알려져 있지만, 실은 피시루이는 今文家<sup>1)</sup>에 속하는 학자여서 금문학과

1) 今文家: 중국의 經學에는 漢대부터 古文과 今文의 차이가 생겼다. 본시 古文은 甲骨文이나 籀文 같은 옛날의 漢字體를 가리키고 今文은 漢대에 통용되던 隸書體의 한자를 가리킨다. 그리고 古文으로 쓰인 經典을 古文經, 금문으로 쓰인 경전을 今文經이라 하였다. 그리고 古文經을 바탕으로 공부하는 것을 古文經學이라 하고 그러한 학자들을 古文家라 하였으며, 今文經을 바탕으로 공부하는 것을 今文經學이라 하고 그러한 학자들을 今文家라 하였다. 古文과 今文은 글자의 字體만이 다를 뿐 아니라 그 글자로 쓴 經典의 名物·制度·解說 등도 서로 달라 淸 대에 이르기까지 학문의 성격이 크게 달랐다.

로서의 편견이 두드러지고, 중국인으로서의 선입관도 중국 경학의 발전을 이해하는 데에 적지 않은 작용을 하고 있다. 그러니 일본학자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쓴 『중국경학사』를 잘 읽으면 내 강의를 이해하는 데에도 크게 도움이 되고 또 보다 객관적인 중국의 경학사를 터득하게 될 것이다.”

교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즉시 타이베이 시내 고서점을 돌아다니며 일본 헌 책을 뒤지어 혼다나리유키가 쓴 『중국경학사』를 한 권 찾아서 샀다. 그 책을 읽어보니 정말 중국의 경학역사를 이해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었다. 그 뒤로 다이권런 교수님을 찾아뵙고 잘 모르는 내용을 질문하는 한편 그 책의 내용에 대한 말씀도 들이자, 교수님은 그 책을 한 번 중국어로 번역해보라는 권유를 하셨다. 나는 교수님이 나를 보다 철저히 공부시키려는 뜻에서 하시는 권유라고 생각하고 숙소로 돌아오자 즉시 그 책의 중국어 번역에 손을 대었다. 나는 먼저 대학 노트에 그 『중국경학사』의 내용을 한 편씩 번역하여 중국 친구<sup>2)</sup>에게 문장 교정을 받은 다음 다시 그것을 원고지에 깨끗이 옮겨 써가지고 다이 교수님께 갖다 드렸다. 열심히 번역하여 그 책을 일 년 전후 되는 사이에 완역할 수가 있었다.

그 때부터 다이 교수는 나를 착실한 학생이라 보시고 내가 공부하는 것을 각별히 잘 지도해주셨다. 그 뒤로 다시 『십삼경주소』도 열심히 읽고 취완리(屈萬里) 교수의 『시경』과 『서경』 강의를 들으며 중국 경학에 파고들었다. 나는 대만대학에 가서 첫 번째로 들은 경학역사 덕분에 다른 교수님들의 강좌도 보다 잘 소화할 수가 있었던 것 같다. 그때 장제스(蔣介石) 총통이 대만으로 옮겨오면서 북경대학의 저명한 중국학 교수들도 각별히 모두 모시고 왔다. 때문에 대만대학의 文學院은 그 당시 중국학에 관한 세계적으로 저명한 학자들이 모두 모인 중국학의 總本山이

---

2) 臺灣大學 中文科 教授를 역임한 故 張亨임.

되어 있었다. 나는 다이쥘런 교수 이외에도, 학과 주임이며 『楚辭』를 강의 하신 타이징농(臺靜農, 1902-1990), 『시경』과 『서경』을 강의 하신 취완리(屈萬里, 1907-1979) · 校勘學의 권위시며 『莊子』를 강의하신 왕슈민(王叔岷, 1914-2008) · 내 지도교수시며 詞曲과 戲曲 강의를 맡으셨던 정첸(鄭騫, 1906-1991) · 중국어학의 대가이신 등통허(董同龢, ?) 등 모두 북경에서 모셔온 대가들의 강의를 들었다. 나는 그분들에게서 많은 것을 배웠기 때문에 그분들 덕분에 학자가 될 수 있었다고 믿고 있다. 그리고 그 곳에서 석사과정을 마치고 귀국하여 서울대학에서 교편을 잡기 시작하였다. 그 뒤로도 나는 매우 자주 타이베이를 방문하여 대만대학 교수들의 지도를 받으며 교유하였다.<sup>3)</sup> 다이쥘런 교수님은 내가 찾아뵈올 때마다 내가 번역한 일본 학자의 『중국경학사』 원고를 출판사에 넘겨주었으니 곧 책이 출판될 것이라고 하셨다. 그러나 선생님은 그 책의 출간을 보지 못하고 작고하셨다. 선생님이 작고하신 뒤 몇 년이 지나 타이베이의 한 출판사에서 역자의 이름도 없이 그 일본 학자의 『중국경학사』가 출간되었다. 펴 큰 출판사여서 역자의 이름도 없는 번역 책을 출판하지 않으리라 여겨지는 곳이다. 혹 선생님이 작고하신 뒤 내 원고를 전해 받았던 출판사가 역자의 이름을 모르게 되어 역자 없는 번역서를 발간한 것이 아닐까 여겨지게 된다.

어떻든 나는 대만대학으로 가서 가장 먼저 '경학'과 해후를 하게 됨으로써 그곳 명교수들의 강의를 제대로 소화할 수 있었고 중국의 고전문학을 공부할 수 있는 기반이 다져졌다고 믿는다. 그리고 '경학'과의 해후를 통해서 이루어진 기반을 바탕으로 나는 보다 착실한 중국문학자로 발전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

3) 나는 그때 한 달에도 몇 번씩 臺灣에 갔음으로 文敎部로부터 海外旅行이 너무 잦다는 경고도 받은 일이 있다.

